

준비하고, 실천하고, 봉사하라는 몬슨 부대관장의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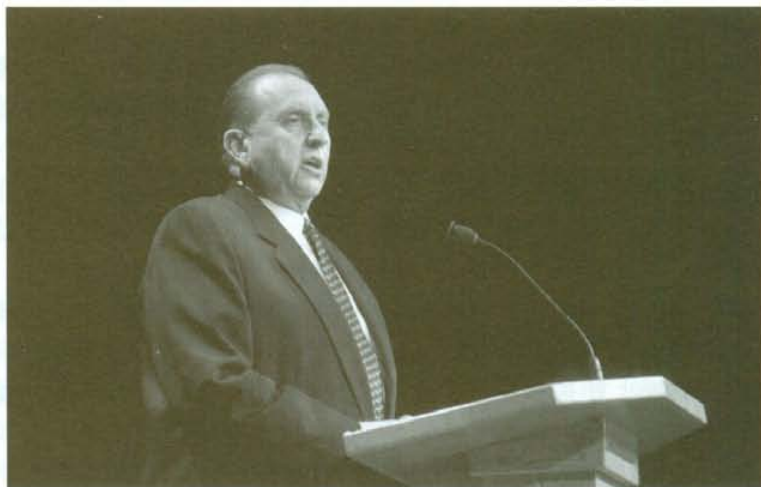


사진 촬영: 마이클 루이스

교회 교육 기구 방송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더 쉽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더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몬슨 부대관장은 1월에 북미, 중미, 그리고 남미 대륙의 수천 명에게 중계된 교회 교육 기구 위성 방송에서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신이 있기 원하는 곳에 있습니까?” 22개국 언어로 통역된 노변의 모임 말씀은 녹화 방송으로 유럽에도 방영되었으며, 전 세계 종교 교육원 학생들이 구하여 볼 수 있도록 비디오 테이프도 제작되었다.

미국, 아이다호 주 리스버그에 소재한 비와이유 아이다호에서 행한 말씀을 통해 몬슨 부대관장은 젊은이 들이 인생에서 행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공식을 말해 주었다.

“있어야 할 곳에 거하십시오.
“되어야 할 사람이 되십시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십시오.
“행해야 할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 몬슨 부대관장은 열리기만 한다면 지 상의 여정에서 성공을 보장해 줄 세 가지 문, 곧 준비 의 문, 실천의 문, 봉사의 문에 대해 언급했다.

준비의 문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준비 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무서움은 성장과 성취의 적입니다.”라고 몬슨 부대관장은 말했다. “우리의 생애를 낭비하지 않 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 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준비 과정에서 자기 수련을 하십 시오.”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점을 만드십시오. 여 러 분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공부하십시오.

“이러한 권고가 확실히 거의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젊은 여성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천의 문

몬슨 부대관장은 젊은 회원들에게 옳은 것을 행하는 용기를 항상 지닐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의 외투가 포근한 겹옷이 아니라, 책임으로 싸인 예복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여러분은 타협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쉽지만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더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포부보다 더욱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다는 주의를 주었다. “큰 포부를 간직하고, 목표를 가지며, 여러분이 행하는 것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부를 실현

하기 위해 돌진해 나가는 것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실수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핵심은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봉사의 문

일버트 슈바이처 박사(1875~1965)의 말을 인용하며 몬슨 부대관장은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지를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봉사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주님의 종들과 예수께서 행하신 봉사의 예가 경전에 가득히 들어 있다고 지적하며, “예수께서는 친히 절름발이 걸인을 걷게 하셨으며 또 보지 못하는 이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인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 그분은 간음으로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발견합니다.”라고 몬슨 부대관장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자신의 책상 건너편 벽에 걸려 있는 구세주의 그림에 대해 말했다. “고민스런 문제나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저는 항상 구세주의 모습이 있는 그 그림을 응시하고는 가만히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 것인가? 그러면 의문과 우유부단은 사라집니다.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몬슨 부대관장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하늘의 도움을 구하라고 격려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기쁜 느낌, 위로를 주는 지식은 없습니다.”

포터 장로: 영원한 가족은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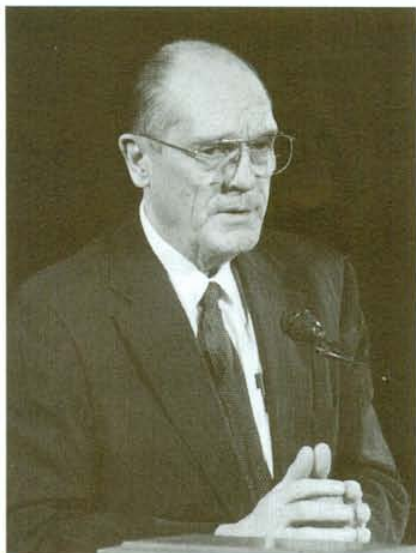
사라 제인 워버

현대의 예언자들은 귀 기울여 듣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내다보고 경고를 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칠십인 회장단의 엘 알든 포터 장로가 2001년 2월 4일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들을 귀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로서 곧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느끼고 내면 깊이 간직하여 따를 수 있는 이들입니다.”라고 포터 장로는 말했다.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하면서, 포터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 매

리웃 센터에 모인 18,000명이 넘는 대학생 연령의 젊은이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상고”(니파이삼서 23:5) 할 것을 권고했다. 북미, 중미, 그리고 남미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공 위성 생중계를 통해 이 말씀을 들었다. 22개국 언어로 통역된



18,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브리검 영 대학교의 매리웃 센터에 모여서 칠십인 회장단의 엘 알든 포터 장로의 권고를 들었다.

노년의 모임 말씀은 녹화 방송으로 유럽에도 방송되었으며, 전세계의 종교 교육원 학생들이 구하여 볼 수 있도록 비디오 테이프도 만들어졌다.

연설을 하면서 포터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상기시켜 주는 현대의 예언자들과 그 분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5년 9월에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 소개하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의 일부를 인용했다. 포터 장로는 예언자들이 역사를 통하여 반복해서 가르친 가족에 관련한 표준, 교리, 그리고 관습을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영감을 받아 이 신성한 선언문에 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몇 개월 내지는 몇 년 이내에 결혼하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몇몇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그 단계를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선언문을 세심하게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엄숙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말

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 상대자가 이 선언문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결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포터 장로는 선언문을 처음 읽고 이 선언문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서명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1876~1972)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대관장이나 대관장단, 또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단결된 목소리는 결코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주님의 마음과 뜻에 반대되는 권고를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감리하는 영원한 열쇠와 권리”, 엔사인, 1972년 7월호, 88쪽)

포터 장로는 이 말씀이 진실됨을 증거하고 나서 젊은 성인들에게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첫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오늘날 세상에 그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성적인 죄와 음란물이 가져다 주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온 시대를 통하여 예언자들이 주는 메시지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지키라는 것이었으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한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분들은 약속했습니다.”라고 포터 장로는 말했다. “오늘날 텔레비전 방송망, 비디오 및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 많은 것들은 여성들의 품위를 저하시키고 창조의 권세가 지닌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취하는 삶을 기대하며 의의 강한 기초를 쌓기 위하여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할 필요성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킬 충분한 단어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포터

장로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채를 피하고 또 그들의 집에 질서를 세울 것을 부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에 “정직, 진실, 충실함, 명예,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의 면에서 심각한 쇠퇴”가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자리를 위선과 기만으로 대체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가정에서의 많은 불화와 불행이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는 말했다. “절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자유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포터 장로는 영적 및 세상적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서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대로 그분의 권고에 귀 기울이는 커다란 지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연설을 끝맺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라는 점을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엄청난 희생에 대해 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그 훌륭한 분들의 후손으로 남는 것에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우리는 수행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난관들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난관에 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이 필요로 했던 빛과 지식을 그들 시대에 살아 계셨던 예언자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빛과 지식을 같은 근원, 곧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들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2월10일

선교사 준비시키기

손 디 스톨

몇주 간의 집중적인 복음 및 언어 공부부를 마치고, 선교사들은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원 밖으로 나간다. 그 영적인 확신이 성공적인 선교 사업의 열쇠라는 것을 일곱 명의 신입 선교사 훈련원장과 그 부인들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1월 9일에서 12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된 세미나를 통해 배웠다. 총관리 역원들과 선교사부 담당자들은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 준비시키는지 훈련원장 부부들에게 가르쳤다.

선교사 훈련원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분별의 은사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 셀 뱌라드 장로는 말했다. 원장은 접견을 통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알 수 있으며, 그의 부인은 선교사의 용모와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대하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훈련원장은 성신의 분별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뱌라드 장로는 나움과 같이 말했다. “성공적인 선교사란 모든 면에서 합당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사업과 선의의 씨앗을 심는 일에 집중하는 선교사이다. 전세계에 6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목적은 성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는 것이다. 선교사가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열심히 일했으며 오늘의 수고를 받아들이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훌륭한 선교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선교사는 침례를 주어야 하지만, 그런 선교사는, 침례를 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이다.”

칠십인 회장단이며 선교사부 집행

책임자인 얼 시 텅기 장로는 오늘날 전세계 회원 수를 1834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모였던 작은 규모의 신권 지도자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동안 선교 사업의 축적된 가치를 설명해 주었다. 그 작은 통나무 학교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유년기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을 한 간증 모임에 모이게 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예언자는 그들의 간증에 감명 받았으나 그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놓여진 아기 보다노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1898년 4월 연차 대회 보고, 57쪽에서 인용) 이제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을 조망할 수 있는 시점에서, 텅기 장로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요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대로 교회가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회는 15개의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원장은 2년 동안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다. “우리가 온 첫 주에 이곳에서 800가족이 넘는 가족과 그 선교사들을 맞이하였습니다.”라고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장의 부름에서 해임된 더블류 브렌트 에드먼 형제는 회상한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 이후로 67,000명의 선교사를 맞이했습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월 20일

사진 촬영: 손 디 스톨, 처치 뉴스 제공



더블류 브렌트 에드먼 원장과 부인 케이 에드먼 자매(오른쪽)가 몽골에서 온 22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새로 부름 받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장인 데이비드 비 워스린 원장과 부인 앤 워스린 자매를 만나고 있다.

온 세상을 맞으려

손 디 스톨

내년에 열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에서 온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교회는 유타에 거주하는 회원들

에게 훌륭한 주최자가 되고 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교회의 공보

사무실에는 올림픽을 맞이하는 교회의 준비에 관하여 언론 매체로부터의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교회 소식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리고 교회 공보부의 관리 책임자인 브루스
엘 올슨 형제는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동
계 올림픽이 교회가 아니라 솔트레이크시티
와 유타 주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점을 분명
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가 벌이
고 있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그 행사를 ‘물론 올림
픽’으로 만들 의사가 없음을 이미 분명히 밝
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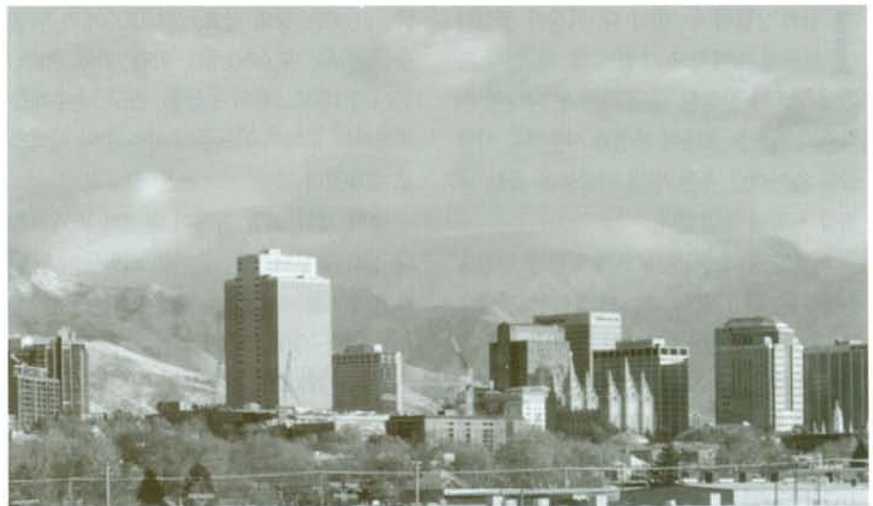
지역 사회의 지원은 일찍이 시작되었다.
1998년 11월에 대관장단은 자원 봉사라
는 교회 회원들의 오랜 전통을 상기시키고,
올림픽 준비를 돕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에게 솔트레이크 조직 위원회로 연락할 것
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타 지역 회원들에게
보냈다.

올림픽 위원회의 직원 채용이 원활히 진
행된 이후인 2001년 2월에 교회는 교회 자
체의 자원 봉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감독들
에게 보냈다.

“교회 회원들 중 이미 올림픽 위원회와 활
동하기로 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킬 필요
가 있습니다.”라고 교회 자원 봉사 활동 책
임자인 재니트 베컴은 말했다. “같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일을 피하려는 진솔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수백 명의 자원 봉사
자들이 교회가 벌이는 노력에 필요할 것이
다. 그러한 직책에는 영접 주최자, 전화 교
환수, 접수 요원, 컴퓨터 운영자, 여행 안내
자, 사무실 요원, 언론 매체 관계 전문가, 보
안 지원 인력, 컴퓨터 기술자, 작가, 가족 역
사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자원 봉사 준비와 더불어, 교회는 매일 밤
수여식이 열리는 메달 플라자(Medals Plaza)
로 사용될 시내의 대지를 포함하여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교회 소유의 특정 대지를 빌



솔트레이크 성전은 올림픽 방문자들의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다.

려 달라는 요청에 응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
시들에 관한 문화 프로그램이 더욱 더 관심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 태버내클 합창단이
행하는 네 번의 발표회가 올림픽 기간을 위
해 계획된 수십 개의 문화 행사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교회가 마련하는 다른 문화
행사들은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약 70,000명의 인파가 메달 수여식과 문
화 행사에 참석하면서 매일 저녁 솔트레이크
시티의 거리를 가득 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템플 스케어를 방문할 사람들은 연중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의 안내를
받을 것이다.

교회는 또한 언론 매체 분야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것에 대
비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면 언
론 매체가 교회를 취재하고 싶어할 것이라
고 올슨 형제는 말했다. “우리가 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관계없이 언론 매체 관계자들
의 생각 속에서 교회와 유타는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는 것
은 상식입니다.”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 마련되어, 교회에
관하여 글을 쓰거나 보도를 하는 데 관심을
가진 언론 매체 방문자들에게 개방될 뉴스
자료 센터가 그 준비의 일환이다. 이 센터는
현재의 가족 역사 시설에 있게 될 것이며,
가족 역사 시설은 몇 주간 배치를 달리 할
것이다. 이 센터 내에는 작업 공간, 전화, 인
터넷 및 전자 우편 접속, 그리고 다른 시설
들이 들어설 것이다.

뉴스 자료 센터는 올림픽 공식 프레스 센
터 또는 유타 여행 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언
론 매체 센터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
을 것이다.

신문 잡지 관계자와 홍보 관계자들을
위한 자료가 보강되면서 교회 웹 사이트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성전 참담과
다양한 언어로 “온 나라에 친구들”이라고
쓰인 문구가 특징인 새로운 그래픽은
2002년의 처음 몇 달 동안 교회가 나누
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2월 10일

교회가 엘살바도르와 인도의 지진 피해자들을 돕다

1월과 2월에 두 번의 대 지진이 엘살바도르를 강타하고, 1월에 또 한 번의 지진이 인도에 발생한 뒤 교회는 두 나라에 인도주의 지원을 보내어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했다.

지진이 중미 엘살바도르의 태평양 연안을 강타했을 때 15명의 말일성도들이 사망했다. 또 4주 후에는 수도에서 가까운 내륙 지역에 진앙을 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다. 226,000킬로그램의 식량, 3,200개의 천

막, 25,000장의 담요, 34,000개의 위생용품 자루, 7,000개의 학습 자료 키트, 13,600킬로그램의 구급품, 공구, 손수레를 포함하는 교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이 지역으로 보내졌다.

수백 채의 회원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하게 무너졌다. 교회는 회원들이 협동하여 수리를 하고 집을 재건축하는 동안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했다.

중미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린 로빈스 상로는 그 지역의 모든 선교사들이

무사하다고 보고했다. 선교사들은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난 직후 생존자 수색과 부분적으로 문헌 집에서 물건들을 꺼내는 일을 돕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방책물을 통과하도록 허락되었다.

지역의 신권 지도자들은 궁핍한 회원들을 금식 현금을 사용하여 도와주고 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회소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도왔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86개의 집회소 중 구조적 손상을 입은 건물은 하나도 없으나, 몇몇 임대 집회소는 파괴되었다.

우연하게도 교회는 첫번째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물품을 가득 실은 비행기를 엘살바도르로 보냈고, 재난이 일어난 시간에는 교회 복지 사업부의 카메라 취재 팀이 중미로 가는 도중이었다. 취재 팀은 곧 피해 지역에 도착하여 교회가 어떻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지를 영상에 담았다.

로빈스 상로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는 회원들이 이 시련을 개인적인 성장과 배움의 시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로 손을 뻗치는 시기,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배웠던 시기로 돌아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인도 북서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교회 회원, 선교사, 또는 교회 재산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전혀 없다.

교회는 재난으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270,000킬로그램 이상의 식량과 담요, 의복과 의료품을 보냈다. 응급 물자는 구호 단체들에 의해 배분되었다. 교회는 또한 탐색 및 구조 작업, 임시 거처, 그리고 난민촌 물자 구입을 돕기 위해 기금을 보냈다.



왼쪽: 선교사들은 엘살바도르에서 생존자들을 찾아내고 일부만이 묻혀 버린 집에서 물건들을 꺼내는 일을 도왔다.
아래: 엘살바도르의 지진으로 인한 진흙 사태가 가옥을 파괴하고 여러 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온라인에서 수십 억의 이름을 만날 때가 임박하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더욱 더 많은 사이트들이 추가됨에 따라, 교회의 온라인 가족 역사 탐색 사이트인 패밀리 서치(FamilySearchTM) 인터넷 계보 서비스 또한 발전하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추산되는 사이트 수는 1억 8백만 개로서 전세계적으로 약 4억에 달하는 그 이용자 수만큼이나 엄청나다.

최근의 추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1억 5천 7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있으며, 영국과 일본에 각각 3천 5백만명, 독일에는 2천 4백만 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한다. 인터넷 접속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5월 24일에 개설된 교회의 가족 역사 무료 사이트는 그 이후 조회 수가 50억 회에 달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또한 다음 단계 탐색을 제안하고 이용자들

에게 자료 저장을 권하는 쌍방향 컴퓨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2001년에는 이 사이트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연말까지 총 10억에 달하는 이름이 온라인에 보유된다. 추가되는 정보에는 중앙 아메리카 및 멕시코의 2천 2백 만개 기록, 1천 1백만 명의 이름이 있는 스칸디나비아 주요 기록 색인의 스웨덴 관련 기록, 6천 4백만 명의 이름이 실린 미합중국 사회 보장 사망자 색인부, 그리

고 1억 2천 5백만 명의 이름이 추가 갱신된 교회의 국제 계보 색인부가 포함된다. 다른 지역의 주요 기록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조상 파일과 가계도

컴퓨터 그래픽 편집: 토마스 에스 자일드



교회의 가족 역사 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기 사이트이다. 무료로 이용되는 이 사이트의 조회 수는 50억 회에 달하고 있다.

자료 파일 자료들도 실릴 것이다. 이용자들은 조상 파일과 가계도 자료 파일을 위해 자료를 보낼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기록으로는 가족 역사 도서관 카탈로그가 있는데, 매달 전세계의 기록 보관소로부터 추가되는 5,000통 이상의 마이크로 필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필름에 담긴 개인 기록들은 온라인으로 볼 수 없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히 운

영되는 가족 역사 사이트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 및 교회 역사부의 관리 책임자인 리차드 이 텔리 2세 형제에 따르면 모든 대륙으로부터 조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텔리 형제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에는 2백만 통 이상의 마이크로 필름에 담긴 계보 자료, 173,795세트의 마이크로 피시(수십만 개의 피시에 해당된다), 288,000권의 장서, 14,000권의 정기 간행물, 8,000개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교회는 거의 50개국에서 300 대의 카메라 장비를 운영하여 한 해에 7천 5백만에서 8천만에 이르는 자료를 촬영하여 기존의 자료에 추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초출 자료 봉사하며 이러한 기록을 색인화하는 일을 돕고 있는 약 30,000명에 이르는 자원 봉사자를 전세계에 갖고 있습니다.”라

고 텔리 형제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75개국에서 3,500개 이상의 가족 역사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센터 이외에도 매년 지구촌 곳곳에서 약 200개 이상의 비율로 센터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매달 7만 통의 마이크로 필름이 가족 역사 센터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월 20일

멜기세덱 신권을 위한 조명

다른 빵을 돌려 대라

닐 뉴웰

에과도르 오타발로의 사람들 중에 교회를 혐오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교회에 관한 모든 것, 교회 회원, 교리, 교회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회원들이 새로운 집회소를 짓기 원했을 때, 그는 반대했다. 교회 소유지에서 낙서가 발견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그가 한 일이라고 믿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교회를 왜 미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지난 여름에 지진이 오타발로 지역을 강타했을 때, 그의 집은 파괴되었다. 그는 머무를 곳이 없었다. 그는 여기저기에 도움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시 당국에, 다음에는 여러 다른 교회에 호소했다. 그러나 오타발로는 가난한 마을이었으며, 무슨 일인가를 할 만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하기는 했으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았고 자원은 거의 없었다.

10월 말쯤, 말일성도 교회를 혐오했던 이 사람은 자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 에과도르 임바부라 옥타발로 스테이크, 페구체 와드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라파엘 캄포의 집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당신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제 집이 무너져 내렸는데, 저에게는 그 집을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아 본 적이 없었고 또 제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이 머무를 집이 없습니다. 당신네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캄포 형제는 30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는 옥타발로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 악의에 찬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맨 위: 에과도르 임바부라 오타발로 스테이크, 페구체 와드의 회원들이 파괴된 집의 지붕을 건축하고 있다.

위: 신권 형제들이 건축에 쓸 블록과 여러 자재를 기증했다.

을 직접 보아 왔다. 그날 수많은 생각이 캄포 형제의 마음속을 스쳐 갔다. 그러나 결국 참으로 커다란 권세로 그에게 영향을 미친 말은 구세주의 말씀이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태복음 5:39)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3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가르쳐 왔다. 아마도 지금은 그 동안 우리가 가르쳐 왔던 것을 실천할 때인가 보다.”

캄포 형제는 그의 사위이자 와드의 감독인 마리오 헤르만 카쿠안고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카쿠안고 감독은 같은 생각을 했다. 다음 일요일,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의 합동 모임에서, 감독과 대제사 그룹 지도자가 그 상황을 설명했다.

감독이 말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집이 없으며, 그는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종이를 돌려서 도움을 제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꺼이 기증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그

모임에는 23명의 형제가 있었다. 종이가 다 돌아갔을 때, 그 곳에는 2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은 얼마간의 못을 가져 오겠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에 굵은 목재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50개의 시멘트 블록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한 사람은 모래를, 다른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했다. 명단을 살펴보고 난 후에, 카쿠안고 감독은 형제들에게 다음날 오전 7시에 모여서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을 돕자고 제안했다.

캄포 형제가 그 사람에게 교회의 회원들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 내렸다. 그는 울었다. 캄포 형제 또한 울었다.

2000년 11월 6일 월요일, 페구체 와드의 신권 정원회의 회원들이 오전 7시에 모여서 그 동안 그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한 사람을 위하여 수수하지만 견고한 집을 지었다. 일을 끝낼 즈음 그들은 집 한 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해의 다리, 곧 봉사 사랑, 그리고 용서의 다리를 지었다.

기사 제공: 처치 뉴스, 2001년 1월 20일

2001년 6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자료로서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1년 6월호에 나와 있는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위해서는 이번호의 친구들란 6~7쪽에 나와 있는 "예언자를 따르면 축복이 옵니다"를 참조한다.

1.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해: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출애굽기 2~20장; 초등학교 교재 6, 제22과 참조) 바구니, 지팡이, 홍해 사진(또는 다른 호수나 바다의 사진) 등과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물건과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온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위에 열거된 물건 또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고 그 물건과 사진이나 그림이 모세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하게 한다. 모세가 구약전서에 있는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어린이들에게 말해 준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에 순종했을 때 음식을 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등 여러 번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순종하지 않았으며, 모세는 그들이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를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이 예언자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게 한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들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여러분의 간증을 전한다.

2. 예녹(모세서 6~7장; 초등학교 교재 6, 제7과); 노아(초등학교 교재 6, 제8과); 모세(초등학교 교재 6, 제18과); 리하이(초

등학교 교재 4, 제2과 및 제5과); 베냐민 왕(초등학교 교재 4, 제10과)과 같은 구약전서 또는 물몬정의 예언자 한 명을 선택한다. 각 반에 삽화로 그릴 부분을 배정하여 준다. 어린이들이 그들의 그림을 그릴 때, 반주자가 경건한 노래를 연주하게 한다. 그림들을 모은다. 어린이들이 예언자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 부르기를 연습할 때, 롤러 박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2~163쪽 참조)에서 사용하거나 벽에 걸기 위해 그림들을 테이프로 붙인다. 어린이들의 노래 부르기가 끝나면, 각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그림들을 보여 준다.

3.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해: 노아(초등학교 교재 6, 제8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몇 어린이를 나오게 하여 방주 안으로 데려온 몇몇 동물의 홍내를 내게 한다. 다른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동물의 홍내를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경전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복사한다.(창세기 6:9~21; 모세서 8:22~30 참조) 그 이야기를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서 각 반에 하나씩을 준다. 칠판이나 커다란 종이 위에, 물에 떠 있는 방주의 그림을 그린다. 칠판이나 종이에 수면을 명확하게 그린다. 어린이들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을 말해 보게 한다.(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방주를 짓는 것, 방주에 음식을 넣은 것, 방주에 동물들을 모은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 등) 이러한 대답들을 칠판이나 종이에 그려진 수면 위로 적는다. 다음에는 악한 사람들이 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을 목록으로 만든다.(예언자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조롱했다, 노아를 죽이려 했다 등) 이러한 것들을 수면 아래에 적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점을 지적한다.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멸망 당한다. 방주 위에 무지개를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코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덮지 않으실 것이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다고 설명한다.(창세기 9:13~15 참조) 어린이들이 각각의 무지개 색깔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날 예언자를 따를 때 받는 축복을 한 가지씩 말하게 한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설명한다. 우리가 말일의 예언자들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2001년 서울 지구 대회



지난 4월 28~29일 서울 지구 대회가 십이사도 정원회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28일 오후 1시에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서울·경인 지역의 10개 스테이크장, 미군 지방부장, 강릉 지방부장, 서울 성전장, 서울 선교부장, 서울 서 선교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모임을, 오후 3시에는 스테이크와 와드·지부의 모든 신권 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권 역원 모임을 가졌다.

또한 29일 오전 11시에는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5,6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요일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를 위해 3개월간 연습한 200여 명의 합창단은 허병석 형제의 지휘로 아름다운 합창을 선사하여 대회를 한층 영적으로 고양시켰으며 각 스테이크에서 10명씩 선발한 안내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로에 나와 대회장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한편 최근 18개월 이내에 개종한 새로운 회원들과 스테이크 선교사들은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준비한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문구와 상징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연단의 바로 앞좌석에 참석했다.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과 일요일 총회에서 옥스 장로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간증했으며, 가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회원들을 잘 도와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옥스 장로는 지구 대회에 앞서 27일 오후 프레스 센터에서 국내 유력 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들은 시종 진지하게 교회의 발전 현황과 한국에서 일반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옥스 장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단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여 훌륭한 시민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물음에 “인간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무보수 성직자와 관련된 물음에서 “말일성도들은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닌 일주일 내내 신앙인으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어도 교회가 유지 발전되는 원인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옥스 장로는 “가족의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의식을 받습니다. 가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옥스 장로는 한국의 기자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기자들보다 가장 진지하고 탐구적이며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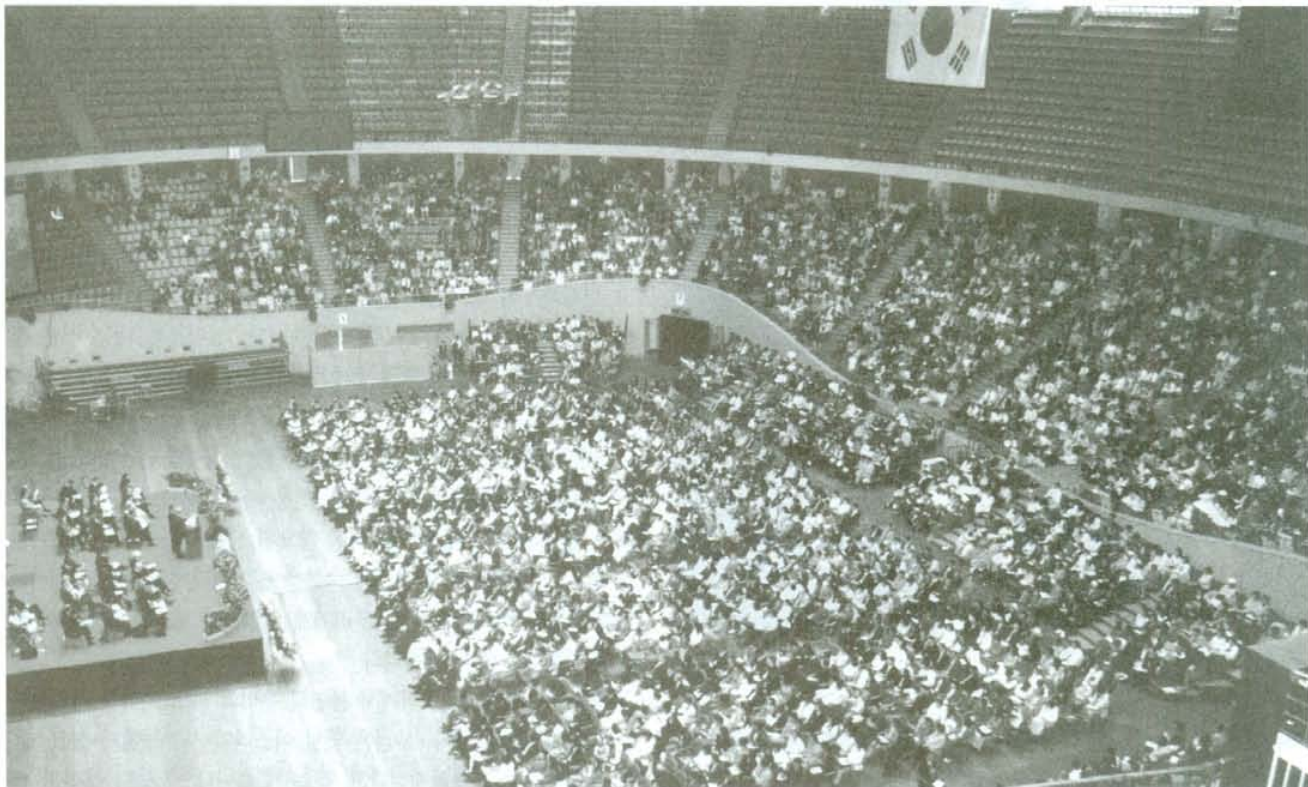
다음날인 28일 오전, 옥스 장로는 세종로 정부 중앙 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이 레이 베이트먼 장로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가 함께하였다. 옥스 장로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감사를 표하고 교회가 강조하는 가족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가족 선언문과 단란한 가족을 상징하는 조각상을 기증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를 실천하는 교회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족보 수집 및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서울 지구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2001년 서울 지구 대회를 위하여 각 스테이크장으로 구성된 신권 준비 위원회와 시설, 안내, 의료, 의전, 홍보, 통역, 음악 등의 실무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개월 여 동안 준비했다. 지구 대회를 마치고 준비 위원장인 칠십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옥스 장로.(가운데)





5,600여 명의 회원으로 가득 찬 대회장 전경.

인 지역 관리 역원 고원용 장로는 “21세기에 들어 처음 가진 대회를 훌륭히 마치게 되어 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과 참석하신 회원들, 구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신 스테이크 연합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강화, 새로운 개종자 및 구도자에 대한 회

원들의 적극적인 도움 등 평소 강조되어 온 복음의 원리에 따라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회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복음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성도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충실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계명에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십이사도 정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훌륭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모임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5,6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합창단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200명이 넘는 인원이 합창단을 이루고 있으며, 아주 잘 가다듬어진 훌륭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합창단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런 합창단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신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교회의 훌륭한 스

테이크장, 감독, 선교부장, 지방부장, 지부장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말씀한 분들의 모든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가슴에 빨간 배지를 단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최근에 침례 받은 개종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얼굴에 행복이 깃들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



대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욱스 장로.

시는지 알며, 충실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새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더 나은 직장인이 되며, 더 나은 학생이 됩니다. 더 나은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더 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됩니다. 더 나은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들고, 좋은 사람은 더 좋게 만듭니다. 저는 새로운 회원 여러분들께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하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모두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고 난 뒤 축복의 문이 열렸지만,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은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교회에 참석하셔서 성찬을 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회원이 됨으로써 술과 담배, 커피, 차 등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육체적 건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셨다면 빨리 성찬을 취하고 회개하여 나아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축복이 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십일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도록 도와줍니다. 십일조를 받으러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직접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셔서 감독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호텔에서 신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신용 카드를 쓰는데,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청구서가 옵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십일조는 내지 않으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십일조를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일조를 창고에 쌓으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큰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일조를 내면 하늘 문을 열고 물질적, 영적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십일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영원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에 섰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원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곧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감독님께서 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독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로운 회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래된 회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참으로 값진 보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새로운 보배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새로운 회원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경험이 많은 교회 회원으로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간증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이곳에 왜 왔는지 압니다. 어디로 갈지도 압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고 있으므로 모든 민족과 방언의 백성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충실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되기 위해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참된 복음을 외칠 준비를 하십시오.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교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술자가 되려면 수학을 알아야 합니다. 물리와 화학도 알아야 합니다. 언어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복음은 '왜'라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과 교회 모임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녀를 가르치도록 미루지 말고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십시오. 모든 교회 모임과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에는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가족을 돕는 것일 뿐이지 대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공항에서 사탕을 사려고 했습니다. 1달러를 꺼내 가게에 들어갔으나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 제가 1달러를 꺼내면 가게 주인은 제가 무엇을 사려고 하는지 대충 알았습니다. 제가 가게 주인에게 1달러를 보여주자, 그가 사탕과 함께 잔돈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돈으로 100만 페소나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내에게 보여 주며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100만 페소나 가졌으니 부자요." 그러자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오후에 쇼핑을 갔을 때, 그보다 많은 돈을 한 움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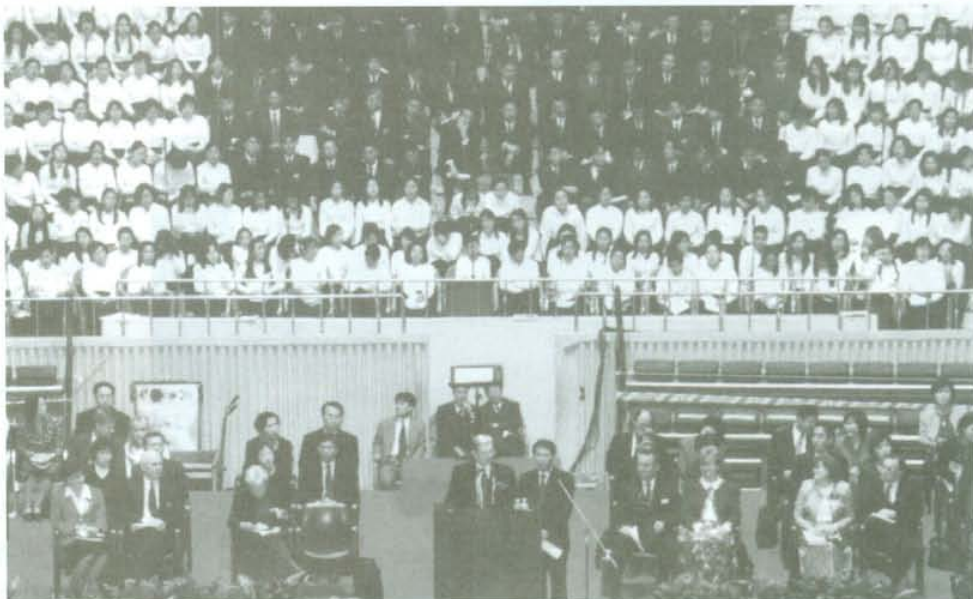
이나 받았는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받은 돈은 1,000만 페소였습니다.

솔트레이크에 돌아 왔을 때, 저는 은행에 가서 담당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감동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돈을 15년 전에 가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15년 전에 100만 페소는 미화 15,000달러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의 가치는 7센트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5년 전에 100만 페소를 가지고 "아, 나는 이제 부자다."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만약 그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15년 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했다면 지금 그 돈이 지니고 있는 7센트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는 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승영하는 데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로 시간을 들 수 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가진 것을 모두 바치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가졌는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가장 가치있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앉은 신권 지도자 부부들과 대회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더욱 고양시켜 준 합창단.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시고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신권의 권능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

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주로서 많은 예언을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의 예언대로 지상에 오셨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고통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참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는 참된 진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이한동 국무총리 예방 이 총리,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회에 감사 표해

이한동 국무 총리(이하 이 총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의 한 분이신 옥스 사도께서 바쁜 시간을 내어 한국을 찾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이하 옥스 장로): 국무총리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총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한국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종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실천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옥스 장로님의 방한을 통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교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옥스 장로: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전세계 150개국에서 1,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총리: 우리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고, 많은 종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는 들어온 지 200년이 되었고, 개신교도 100년이 넘는 등 기독교가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옥스 장로: 기독교가 널리 소개되어 있는 점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 한국과 일본이 다 같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지만 일본은 외래 종교에 대하여 매우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늘의 존재 즉 하늘을 믿고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용이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한동 국무총리(오른쪽)와 환담하고 있는 옥스 장로.



옥스 장로: 좋은 말씀입니다. 총리님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저하고 공통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태어나셨고 ...

이 총리: 그렇습니까. 저는 1934년 생인데.

옥스 장로: 제가 2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법을 공부 하였고, 검사도 하였고, 판사도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정부를 대표하고 계시고, 저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요.

이 총리: 그렇군요.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반갑습니다.(다같이 웃음)

옥스 장로: 바쁘신 일정이시므로 긴 시간을 쓰지 않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세상에 대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문 액자입니다.

이 총리: 감사합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의 전통과 일치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가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귀 교회에서 한국의 모든

족보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들어 미국 유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족보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옥스 장로: 우리 교회에서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담은 조각상을 기념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총리: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교회에서 큰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옥스 사도님의 방한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기대하며 여러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선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옥스 장로: 감사합니다.

비와이유 아이다호에서 한국을 빛낸 학생들



비와이유 아이다호(전 리스 대학)의 “올해의 남자·여자(Man·Woman of the Year)”를 뽑는 행사는 매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행사 중 하나로 학교 생활 동안 얼마나 학업에 충실하였는지, 얼마나 열심히 교내 외에서 봉사하며 좋은 대인 관계를 가졌는지를 평가한다. 교수들의 추천으로 30명을 뽑는데, 2001년 “올해의 남자·여자” 후보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강호진 형제(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와 최현숙 자매(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가 재학생 9,000명의 투표와 면접을 통과하였으며, 마지막 5명을 뽑는 후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의 학생 30명에게 주는 ‘스포르’ 장학금을 받았다.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강호진 형제는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학생 와드 감독단과 이곳 한국 동아리 회장으로서 봉사하며, 결혼한 형제로서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고

가정과 교회에 충실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현숙 자매는 현재 훌륭한 성적으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BYU 아이다호 국제 학생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외국인 합창단의 총 책임자로서 외국인들이 화합하는 데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다영)

안양 스테이크

김정희 자매 장애인의 날 표창 수상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 소속 김정희 자매가 지난 4월 20일(금) 군포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표창을 받았다. 김 자매는 안양 시청 장애인 복지단에 등록하여 매주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장애 아동을 방문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이중호) [리아호나, 2001년 2월호, 교회 소식 10쪽 참조]

전반기 스테이크·지방부 대회

지난 4월 21일(토)~22일(일) 대신 지부에서는 슬로버 부산 선교 부장의 감리로 부산 서 지방부 대회가 열렸다. 일요일 총회에서 슬로버 선교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전했으며, 한 순형 형제가 장로 신권에 성임되었다.

한편 지난 4월 28(토)~29(일)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의 감리 하에 대전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약 4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혜상 형제와 노형기 형제가 장로 신권에 성임되었다.

유산(Legacy) 비디오 출시

우리말로 번역 녹음된 '유산(Legacy)' 비디오가 출시되었다. 이 영화는 초기 말일성도들이 서부로 이주한 내용을 소재로 하였으며, 개척자들의 신앙과 용기와 순종과 희생의 유산이 잘 묘사되어 있다. 1993년 제작 후 솔트레이크시티 요셉 스미스 기념관에서 7년간 5백만 명이 관람하였으며, 상영 시간은 52분, 가격은 4,000원이다.

새봄을 맞아 활기있게 움직이는 성도들

따뜻한 봄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먼저 서울 선교부에서는 지난 3월 18일(토) 미 상공회의소장인 제프리 존스 형제를 초청하여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에서는 지난 4월 7일(일) "신앙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노변의 모임을 열었다. 영동 스테이크 축복사이며 복지 선교사인 김기용 장로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과 현재 그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퍼져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지난 3월 24일(토) 순천 성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순천 지부와 광양 지부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려 참가한 지활동 회원, 구도자들과 우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4월 5일(목)에는 순천 지방부 체육 대회가 열렸다. 순천 대학교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는 회원과 구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순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회원들이 친구와 구도자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한편 독신 성인들이 우정을 나누는 모임도 개최되었다.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3월 1일(목) 정읍 내장산에서 독신 성인 등반 대회를 가졌으며, 30여 명의 독신 성인과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3월 31일(토)에는 서울 동 종교 교육원 봄맞이 무도회가 열려 약 120명이 참석했다. 또 지난 4월 5일(목) 송정 해수욕장에서 부산 스테이크 독신 성인 체육 대회가 열려, 짝피구와 줄다리기, 축구 등을 했다.

등반 대회에 참석한 전주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



순천 지부와 광양 지부의 친선 축구 경기에 참여한 형제들

역원 변경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감독: 박준호(전임자: 강광진)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장: 스티븐 리데(전임자: 남상일)

서울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장: 김근수(전임자: 유인웅)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감독: 조상우(전임자: 신낙규)

제주 지방부가 새로 조직됨

제주 지방부장: 정홍전

제주 지부장: 이명훈(전임자: 김성수)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41기 3명/해외 3명



김지애
서울 스테이크
성동 와드
부산 선교부



이만준
수원 스테이크
평택 지부
대전 선교부



정찬영
광주 스테이크
첨단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동영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



서미란
서울 북 스테이크
일산 와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



이태경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유타 템플 스퀘어
선교부